

						II-A-3
제목	국문	서울지역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 양상				
	영문	Utilization Pattern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enter in Seoul Area				
저자 및 소속	국문	이관,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wan Lee, Hyun-Sul L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야	보건관리 [의료자원-기타]	발표자	이관 [전공의]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19 구급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국 12 개 권역권 응급의료센터 내에 위치하면서 119 구급대와 국민에 대하여 전화를 통하여 응급의료정보, 병원안내정보 및 질병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지역센터는 서울대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업무 1 명, 전산업무 2 명, 응급구조업무 2 명 등 5 명의 직원과 공중보건 의사 3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1 년 현 공중보건 의사 3 명은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일반의 각 1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본 연구는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에서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이 저조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소개와 더불어 서울지역 일부 주민들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이용 양상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응급의료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접수 업무 프로그램인 '응급의료서비스'의 내용 중 1997 년 4/4 분기(10, 11, 12 월)와 1998 년 4/4 분기(10, 11, 12 월)에 접수된 내용을 이용하였다. 1997 년과 1998 년의 2 년 간 4/4 분기의 자료만을 이용한 것은 1997 년 10 월 1 일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고 응급환자 신고 전화가 119 와 129 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신고전화가 119 로 일원화되면서 129 가 1339 로 변경되었다. 이에 구급차 출동 업무가 없어지고 현재의 업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 기간의 병원안내와 질병상담 건수를 비교하는데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1997 년 4/4 분기와 1998 년 4/4 분기 두 기간의 환자이송, 병원안내, 질병상담 건수를 비교하였다.</p> <p>질병 상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 년 5 월 한 달 동안 응급환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질병 상담 환자의 성별, 연령, 진료과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3 차 KSCD), 접수 시간대 등을 포함하였다.</p> <p>3. 결과</p> <p>총 이용건수는 1997 년 4/4 분기 4,361 건, 1998 년 4/4 분기 4,365 건으로 비슷하였다. 환자이송 업무는 1997 년 427 건에서 1998 년 17 건으로 감소하였고, 병원안내는 1,986 건에서 2,263 건으로 277 건이 증가하였고 질병상담은 1,948 건에서 2,085 건으로 137 건이 증가하였다. 1999 년 5 월 한 달 동안 질병상담의 성별분포는 여자가 503 명(56.5%), 남자가 388 명(43.5%)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는 2 세에서 9 세까지 환자가</p>						

307 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30 대가 135 명(15.2%), 20 대가 120 명(13.5%) 등의 순이었다.

질병상담의 진료과목별 분포는 소아과가 891 건 중 334 건(37.5%), 내과가 167 건(18.7%), 정형외과 89 건(10.0%), 이비인후과 82 건(9.2%) 등의 순이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분류해 보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I)이 891 건 중 196 건(22.0%), 손상, 중독, 그리고 다른 외인에 의한 이상질환(XIX)이 183 건(20.5%), 소화기계 질환(XI)이 131 건(14.7%), 근골격계 질환(XIII)이 59 건(6.6%) 등의 순이었다.

질병상담이 접수된 시간대별 분포는 21 시부터 24 시까지 접수된 질병상담이 200 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0 시부터 3 시까지가 160 건(18.0%), 18 시부터 21 시까지가 160 건(18.0%), 15 시부터 18 시까지가 107 건(11.8%) 등의 순이었다.

#### 4. 고찰

1997 년 7 월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 개 지역에 적십자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개소하였다. 1998 년 7 월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신고전화가 129 에서 1339 로 변경되면서 환자이송업무는 119 소방본부 업무로 통합되었고, 2000 년 7 월에는 129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개칭하고 전국 12 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내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관하였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병원안내 정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응급환자가 불필요한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단축시켜 응급환자 분산 등의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응급구조 현장의 구급대원이나 병원의 의료진들에서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 급한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 등을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시킬 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24 시간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위중 여부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선진국과는 달리 119 소방본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119 소방본부의 장비, 시설, 기동성 등과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야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 및 의료인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전화상담원을 비롯한 의료인의 양성, 재교육 등을 통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